2021.11.29. NO.693

# JP베트남 뉴스레터

##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스카이마비스(Sky Mavis)

### 엑시 인피니티 함께하기

기사를 보고 엑시 인피니티에 흥미를 가졌다면 다음의 방식을 통해 게임을 시작하면 된다.

*한국내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P2E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플레이가 불가합니다.

1. 엑시 인피니티 웹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을 위해 자체 암호화폐 지갑 '로닌' 설치
3. 로닌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외부 지갑 '메타마스크' 설치
4. 로닌 계정과 메타마스크 연동

본격적인 게임시작을 위해 캐릭터 구매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1.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ETH) 구매
2. 메타마스크로 전송
3. 메타마스크에서 로닌 지갑으로 재전송
4. 엑시 인피니티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더리움으로 캐릭터 구입

*전송과정에서 이더리움 수수료 발생(gas fee)

출처: COINDESKKOREA(링크)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마비스(Sky Mavis)는 2017년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가 흥행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게임+P2E+암호화폐+NFT+메타버스의 종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엑시 인피니티는 한눈에 봐도 확연히 최근 화두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방식은 캐릭터를 통해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 캐릭터끼리의 교배 등 기존의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1세대 게임 퀄리티만큼이나 단조로운 편이지만, 내면에 있는 게임 전체의 구동방식은 이제까지와는 전무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적 흥행몰이에 중심에 서 있다.

먼저 P2E(Play to Earn)는 기존의 P2W(Play to Win)라는, 운영자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플랫폼 위에 사용자는 이기기 위해 소위 '현질'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과 다르게 게임을 하면서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엑시 인피니티는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에 기반하여 그 위에 게임 내에서 보상(투표, 플레이 등)으로 주어지는 SLP와 AXS라는 형태의 토큰을 받아 시장에서 판매, 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하며 돈을 벌 수 있다. 스카이마비스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제프리 저린에 따르면 엑시 인피니티는 조만간 '커뮤니티 금고'라는 개념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 매매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AXS의 지분대로 배분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기여-보상'의 관점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그로부터 토큰의 경제적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기 위한 포석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탈중앙화 성격을 갖는 블록체인의 성격대로 기존 운영자가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NFT(Non-Fun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상의 완전무결한 소유권 개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히트를 쳤던 '크립토키티'에서 캐릭터마다 고유의 값을 부여했듯, 게임 내 '엑시(Axies)'라고 명명되는 교배를 통해 태어나는 캐릭터 역시 유일무이한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희소성 및 원본성 증빙, 그리고 소유자 정보와 거래 이력 등 데이터의 절대적 보존을 가능케하는 NFT기술을 통해 게임 내 캐릭터가 흥정의 대상이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SLP와 AXS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이용자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필리핀의 경우 수익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형성되기까지 하는 등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임에 필요한 캐릭터를 구매하는데 100~15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지갑 개설 등 신규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P2E에 기반한 독창적인 게임방식은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불러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를 본따 만든 위메이드의 신작 '미르4'가 열풍을 일으키는 등 스카이마비스가 불러온 신개념 게임방식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TheBlockPost(링크), 이코리아(링크), 매일경제(링크)

# 주요기사

## 하띤성, Vung Ang 경제특구에 재정지원 요청

하띤성(Ha Tinh) 인민위원회가 기획투자부로 하여금 총리에게 Vung Ang 경제특구에 대한 5,000억 VND 규모의 추가투자를 건의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6,680억 VND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2C 고속도로에서부터 포모사 철강단지까지의 도로건설계획 자금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가투자분 외의 부족분은 하띤성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베트남 8개 주요 해안경제특구 중 하나인 Vung Ang 경제특구는 철강·기계·에너지·물류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 총 146개의 프로젝트, 48조7,210억 VND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각각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때문에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이다.

출처: DangCongSan(링크)

## 하노이시, 제2국제공항 건설 연구용역 의뢰

하노이시가 기존의 Noi Bai 국제공항을 보완할 새로운 제2국제공항 건설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2030년도 수도권 건설 기본계획 검토·평가·조정 및 방향'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연간 여객수용 1억5000만 명, 1,300ha 규모를 목표로 수도권 내 제2국제공항 건설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될 예정이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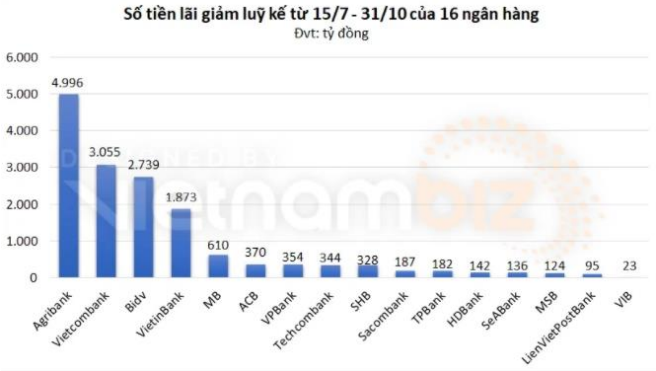
## 성장의 key, 결국 에너지 효율 높여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에 비해 떨어지는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다. 대표적인 풍력 발전 생산업체인 트룽남 그룹(Trung Nam Group) 등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논의가 차츰 진행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KOICA 격인 독일 GIZ의 Markus Bissel 기획이사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확보에 신경쓰기보다는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따르면 실제로 연간 전기 수요량이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전체 GDP의 16.7%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전체 전기수요의 47%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상 제조업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기에,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와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VIR(링크)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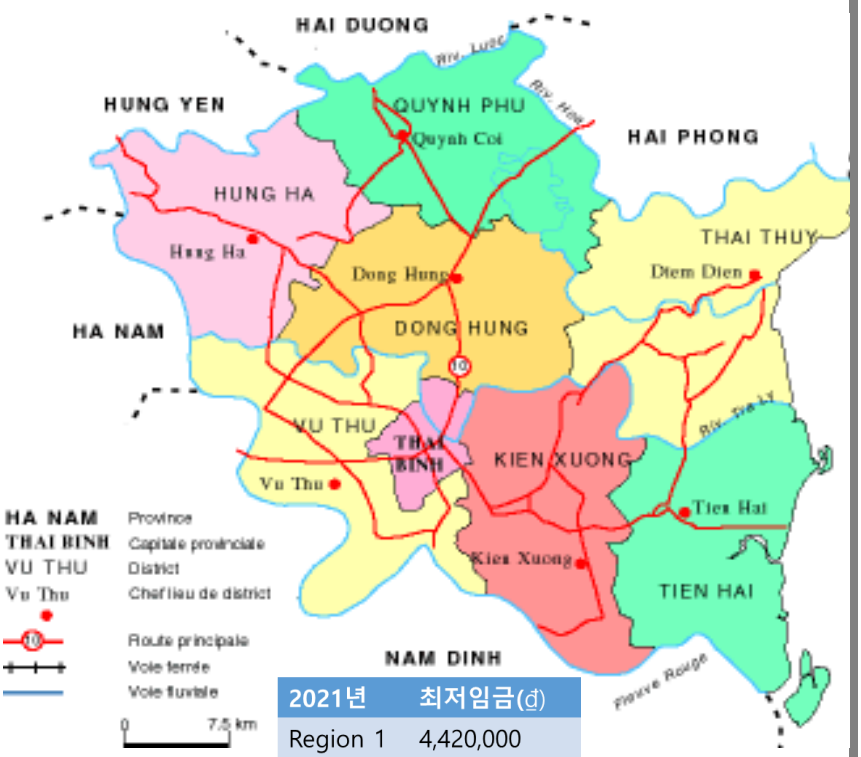
## 16개 시중은행, 이자감면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동참




중앙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6개 시중은행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한 이자감면액이 총 15조5590억 VND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4대 시중은행의 이자감면액은 총 12조6000억 VND로, 1위 Agribank부터 순서대로 Vietcombank, BIDV, VietinBank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상기 시중은행들은 Dao Minh Tu 중앙은행 부총재의 주재하에 연말까지 금리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출처: VietnamBiz(링크)

# 타이빈 성




| 2021년 | 최저임금(đ) |
|---|---|
| Region 1 | 4,420,000 |
| Region 2 | 3,920,000 |
| Region 3 | 3,430,000 |
| Region 4 | 3,070,000 |

전 지역 Region 4

명칭: Thái Bình
성도: Thái Bình (2급시)
교통: 10번 고속국도(남딘, 하이퐁), 39번 고속국도(훙옌, 타이빈), 37번 고속국도(디엠디엔 항)/ 하이퐁 항 (30km) /Cat Bi 국제공항 (40km)
GRDP: 29억6천만 USD (2019)
연간성장률: 7.5% (2018)
홍강 삼각주 지방에 위치한 타이빈 성은 가연성가스 공업단지라고 불릴 만큼 광산가스를 이용하여 각종 도자기 제품, 유리, 건설 자재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가스 자원이 점차 줄어들자 풍부한 인적 자원과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외투기업 유치 및 하이테크 팜(Hi-Tech Farm)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점차 전환해나가고 있다. 지난 달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대표단이 타이빈 성 지도자와 만나 투자 등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출처: [타이빈 성(링크)](), [KOTRA(링크)]()

## Cau Ngan 공단

면적: 184.07ha
입지: 10번 고속국도와 인접/ Hai Phong 항구 45km/ Noi Bai 공항 130km/ Cai Bi 공항 40km/ Hai Phong 도심부 40km
전기: 110/22 KV (35KV)
비용:
- 임대료: 65 USD/㎡ (관리비 0.5 USD/㎡/연)
- 전기료: EVN 규정에 따름
- 물 사용료: 0.45 USD/㎥
- 폐수 처리: 0.49 USD/㎥
- 입주혜택: 법인소득세 처음 2년간 면제

출처: [Kland(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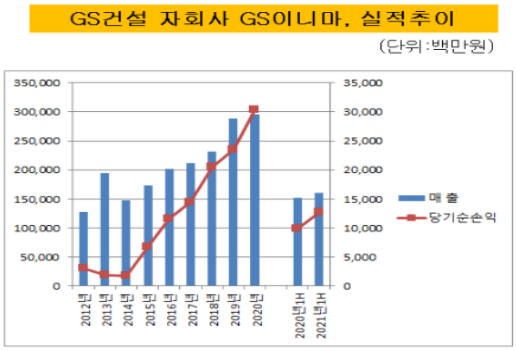
## Tien Hai 공단

면적: 466ha
입지: Thai Binh시 24km/ Hai Phong 항구 74km
전기: 110/22 KV (35KV)
비용:
- 임대료: 60 USD/㎡ (관리비 0.5 USD/㎡/연)
- 전기료: EVN 규정에 따름
- 물 사용료: 0.45 USD/㎥
- 폐수 처리: 0.49 USD/㎥
- 입주혜택: 법인소득세 처음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출처: [Kland(링크)]()

# GS이니마(GS Inima Environment, S.A.)

## GS이니마 국내 상장 추진




△출처: thebell

GS건설이 스페인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의 국내 상장을 본격 준비한다. 지난 달 22일 GS건설은 베트남 수처리업체인 PMV 지분인수를 위해 80억원을 '글로벌워터솔루션'에 출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글로벌워터솔루션은 수처리 계열사 상장을 위해 중간 지주사격으로 내세운 회사로 GS건설 → 글로벌워터솔루션 → GS이니마 → 베트남 PMV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내 중간 지주사를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에 도입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상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제도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인 지배지주회사(SPC)를 세우면 SPC를 통해 국내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 법제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 원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투자자보호 등의 직간접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다.

GS이니마 상장은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 향후 투자에 필요한 실탄 확보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GS이니마의 당기순이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장은 수처리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인 그룹차원에서도 성장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매일경제(링크)

## 베트남 진출 연대기

GS 이니마는 GS 건설의 자회사로 스페인에 위치한 수(水)처리 전문 기업이다. 수처리란 음료수, 공업용수를 대상으로 하는 용수처리와 도시하수, 도시폐수를 대상으로 하는 폐수처리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스페인 소재 수처리 기업으로 출발한 GS 이니마는 1967 년 세계 최초 RO 방식(역삼투압, 해수에 압력을 가한 후 반투막을 이용하여 물과 염분 등 기타 물질을 분리하는 담수 생산 방식) 플랜트를 건설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인데, GS 건설은 스페인 건설기업 'OHL'로부터 이를 2012 년 인수한 뒤 2 년 전에는 잔여 지분까지 모두 사들이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현재 GS 이니마의 수처리 기술은 세계 5 위권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준 브라질·스페인·알제리·오만·멕시코 등 전 세계 17 곳에서 수처리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GS 이니마가 곧 베트남 진출에도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마르타 베르데 GS 이니마 CEO 에 따르면 GS 이니마는 베트남 수처리업체인 PMV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인수가 마무리 되는대로 베트남을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이자 특히 동남아시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GS 이니마의 베트남 진출이 곧 매듭지어지게 되면 이미 현지시장에 진출해 있는 모회사 GS 건설의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과의 사업 연계성 강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수처리 기술을 가진 건설사의 가치 역시 점차 높아짐은 물론이다. 아울러 GS 이니마는 내년 말까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공장에 단일 글로벌 관리 시스템을 구현,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더구루(링크), MDN(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